

이 사람

참교육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예비교사 교양대학을 준비하는 이현정(사범·영어교육 00)양을 만나

“예비 교사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부진 입술로 말하는 그녀는 사범대 문화부장 이현정(영어교육 00)양이다. 이양은 지난 16일(일)부터 10월 13일(토)까지 2주에 걸쳐 열리는 ‘예비교사 교양대학(교대)’을 준비하는 사범대 집행부 중 유일한 00학번이다. “예교대는 현재 사범대에서 접할 수 없는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열리기 때문에 예비 교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양이 강조하는 예교대는 서울 내 대학에서 돌아가며 행사를 맡는 것인데 이번에는 외대에서 열리게 됐다.

작년에 경험해 본 소감을 묻자, “자세히 들었던 신자유주의와 그 일환인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어요. 더불어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현장교육을 느낄 수 있었는데 매우 뜻깊은 경험을 했죠”라며 확실하게 대답한다. 7차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은 이번의 예교대에서도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많아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학교·공교육은 그 곳에 없다는 거죠” 이양은 공교육이 가장 확고히 다져진 나라로 프랑스를 꼽았다. “프랑스에도 신자유주의 교육이 도입되어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 막아냈죠”라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에 일광이 비추어 보였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떠올랐을리이다.

물론 예교대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주제들의 강연들이 예비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좋은 기회인 예교대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작게는 자신의 미래, 크게는 이 사회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꼭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뜻밖에도 이양은 처음 사범대에 들어올 때는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별로 뚜렷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다니다면서 직접 보고 느끼는 와중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해졌죠. 그때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와 닿더군요” 그녀는 지금 예비교사로 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겠다. “현재 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미래의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사범대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다며 일어서는 이양의 모습에서 참교육의 미래가 그리 아득하지는 않다고 느꼈던 것은 나눌 자격이었을까?

이승중 기자 iolinkaen@hanmail.net

※ 「이사람」은 한 주도의 주목받는 외대인을 만나보는 꼭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울 02-961-4152 (윤인) 031-330-4112 oedapress@hanmail.net)

서울, 동아리연합회 및 각 단체 대표자 회의 진행

동연 - 교육투쟁의 의견수렴 다짐

지난 13일(목) 하반기 1차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전동대회)가 열렸다. 52개 동아리 대표자와 분과장 3명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동연)회장, 동연 부회장 등 57명이 참여한 이번 전동대회는 △개회 △민중의례 △보고인전 △논의 △안건 △타기인전 △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연의 방중 활동보고, 하반기 활동계획 등이 보고됐고 10월경 총회 지원과 동아리 2차 기자단 모집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하반기 재단 이사진 문제와 관련된 교육부장 논의에서 동연회장 오하근(동양·베트남어 98)은 “동아리 의견수렴을 위해서 협정을 최대한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우체국에 동아리 영문표기 배치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 동아리연합회장 오하근(동양·베트남어 98)은 “11월중에 열릴 예정인 임시전동대회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범대 - 교육문제에 대한 교양 이취져

오는 18일(화) 사범대학생대표자회의(사학대회)가 열린다.

학원자주회(학자)운동과 사범대 교육 투쟁 등이 논의되는 이번 사학대회는 △개회 △민중의례 △정원확인 △사기단 임명 △진행계획 확인 △보고 인전 △논의 △안건 △타기인전 △폐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학생회는 열린학교 등을 진행했던 방중활동에 대하여 보고하고 평가하게 된다.

또한 예비교사 교양대학·교육 개혁 관련 투쟁 등을 진행할 2학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펼쳐진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강재연(영어교육 99)은 “난지 안전만을 논의하는 지리가 아니라 학자운동과 교육개혁의 현실과 관련하여 교양이 취지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양어대 - 2학기 학자투쟁 결의

지난 13일(목) 서양어대학생대표자회의(서학대회)가 열렸다. 정족수 이상인 37명이 참여하여 성사된 이번 서학대회는 △개회 △민중의례 △정원확인 △사기단 임명 △진행계획 확인 △보고 인전 △논의 △안건 △타기인전 △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상반기 보고에서는 철도노조 청량리차장주부와 연대관계에 맺게 된 노학연대와 부속했던 농협에 대한 평가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계획에서 농학연대와 노학연대에 대한 다짐이 있었다. 한편, 35대 서양어대 공약 이행에 대한 장점이 있었는데, 인터넷 강의 평가제에 대하여 부족함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강재연(리서이상 99)은 “난한년 등의 중점보다는 학자투쟁에 대한 결의 중심으로 짧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동양어대 - 하반기 목표로 '운동대중화'

지난 13일(목) 동양어대학생대표자회의(동학대회)가 열렸다. 총인 51명중 정족수 이상인 32명이 참여하여 성사된 이번 동학대회는 △개회 △민중의례 △보고인전 △안건인전 △토론 및 결의 △폐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회의 상반기 활동이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로는 ‘운동대중화’가 정해졌다. 한편 2학기엔 진행될 학원자주회 투쟁과 반미투쟁과 관련, 간단한 교양과 함께 결의하는 지리가 있었다.

이와 관련, 동양어대 학생회장 강길수(베트남어 98)은 “작년 학원이 동학대회가 무산 됐었는데 이번엔 무난히 성사되어서 기쁘다. 하지만 단위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학회는 자체가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사회대 - 학자투쟁 평가와 계획 논의

오는 19일(수) 사회과학대학생대표자회의(사학대회)가 열린다.

하반기 학자투쟁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이번 사학대회는 △개회 △사업평가 △2학기 사업계획 △논의 △결산인전 △2학기 투쟁에 대한 결의의 순으로 진행된다. 상반기에 있었던 계절제 반대투쟁과 학자투쟁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있게 된다.

또한 방학중에 있었던 여름농투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가을 농투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임창진(사회·신방 98)은 “학생 대표자들과 함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임명회 평가한 후 하반기에 진행될 투쟁에 대하여 결의하겠다” 말했다.

불어과

지난 10일(월) 열린 개강총회는 48명이 참가한 1학기 이후로 거듭해서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못했다. 안건보고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총회는 방중 활동보고와 예정안보고, 2학기 사업계획보고, 논의안건 순으로 학자구조 개편안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10월 초 불어과는 학자구조개편과 관련된 소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오영민(96)은 “총회에 불참한 사람들도에도 논의된 안건이나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두달 전부터는 모든 공지를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 못하신 분들은 메일로 받게 되는 논의된 안건의 내용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 각과 총회 개최

마인어과

지난 12일(수) 개최된 총회는 지난 학기 회의 총회 사전인원을 2/3이상에서 1/3이상이로 바꾸고 전체 허영이 참여해 성사됐다.

이번 회의는 △2학기 총동맹 준비 △2학기 투쟁 계획 △2학기 활동보고 △학대운영위원회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기타안건으로 어문과의 사활한 개편, 과총회 설립준비에 대한 결의의 응답이 있었다.

학생회장 백승준(96)은 “학자구조개편으로 인한 인원,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관심을 1년 유비론 이후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1학기 때 수업자부르 인원과 과 분리가 아직 틀려 있는 분위기였다. 전체를 이루르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2기기를 살아보겠다”고 밝혔다.

유고어과

오는 20일(목) 늦은 5시 30분부터 어문과 200호에서는 유고어과 개강총회가 열렸다.

정족수 확인 후 비로 1학기·2학기 등록금 2%환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이번 개강총회는 특히 학과장을 비롯한 유고어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등록금 환불에 대해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소과제 선취체제와 과의 단합문제에 대한 논의와 △1학기 예산안 결산·보고 △2학기 사업보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학생회장 공성현(동유럽·유고어 96)은 “1학기 말이 난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용인, 21일(금) 생협 총회 및 한마당 개최

오는 21일(금)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생협)조합원 총회 및 한마당이 기숙사 식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7번째인 이번 총회 및 한마당은 △위원회 인사 △부위원장 인사 △사업보고 △결산보고 △회계책임자의 순으로 진행된다. 일본에서 있었던 세계합동조합(ICA)창년제에나 에 참가한 사실과 이외에도, 서울대와의 워크샵 결과 등이 보고된다. 한편 위원장 후보출마 자격을 2학기 이상 등록자로 하는 회계책임이 조합원들의 인원을 받게 된다. 총회 후에는 기숙사 앞마당에서 창립제 행사와 연계하여 조합원 한마당이 진행된다. 생협은 본행사 외에도 △오전 11시 시음회 △1200원짜리 자유식권 판매 등의 추가이벤트를 준비했다. 이와 관련, 생협회장 유성원씨는 “오랜동안 생협학협위원회의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해 주시고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돌아가는지 알아달라”며, “다양한 준비를 한만큼 즐거운 하루를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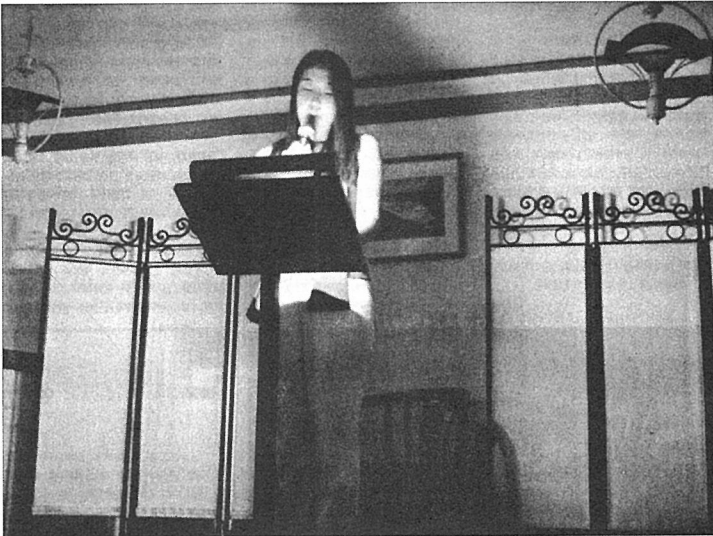
학생생활협동조합연구소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울

△진로 의사결정 프로그램-9월 20일(목)부터 총 4회 △적성검사-9월 18일(화)

용인

△9월 적성검사 일정-9월 19일(수), 9월 27일(목)



낭만의 시간

외대문학회 시낭송회가 지난 17일(토) 서울매우터 근처 '브릭스'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시도 김미호를 음악에 맞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외대라는 표상에 맞는 영어, 불어 등 원어로 된 시도 감상할 수 있었다.

김현정 기자

용인, 합이사안 지속점검키로

지난 12일(수) 용인매우터 총학생회는 총장과 면담을 갖고 32개 합이사안의 추진정도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금 책정위원회 건설 → 오는 대학원의 원에서 논의

△학자구조개편안 → 소위원회의 재가동 요구

△2학기수사 → 용인매우터 교통소위원회에서 논의중, 학회동아리 연동등과 함께 내년 예산안에 포함 요구.

△총장도서관 → 건축위원회의 중의 논의나 진척이 없음. 학생협회를 통한 설계도 마련 요구

△용인매우터 도서관 → 서울매우터 도서관 정도 개선 요망

△학기점검학급 → 성적 3.0 이상 자격요건 제한 삭제 요구

또한, 이날 총학생회는 32개 합이사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학생처와 총학생회는 매우 만나 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

용인, 졸업사진 추가 촬영

용인매우터 졸업반위원회(졸반위)는 오는 20일(수)까지 졸업사진 추가촬영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촬영은 1학기 미촬영자와 재촬영자에 한해 실시한다. 추가로 촬영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3,000원을 촬영당일 납부

하면 된다.

또한, 졸업반지 신청도 오는 9월말까지 추가로 받게된다. 졸업반지 구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과 취업대표에게 대금을 납부한 후 졸반위 사무실에서 치수를 재면 된다. 반지대금은 30,000원이다.

예비군 전출, 입 신고 오는 24일(월)까지

서울매우터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오는 24일(월)까지 학생회관 1층 비상계화실상에서 접수 받는다. 2학기 대학직업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예비군 방첩부류인정(비상계화) 관할 시(군), 학적번호 신고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신입생 및 원제 복학자는 제외)을 지참해야 한다. 휴학, 자퇴, 제적, 졸업으로 인해 전출 신고가 필요한 학생도 오는 24일까지 학적번호 신고서(학과 및 각 대학원 교과과목)를 지참해

신고하기 바란다.

한편, 하반기 교육일정은 전반적 교육훈련(기본, 소집검정) 불참자를 대상으로 10월 10일(수) 실시되며, 복학자 기본교육 훈련은 오는 10월 11일(목) 진행된다.

기타 예비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학생회관 1층 학생처 앞 비상계화실상(구내전화 4165-6, FAX: 963-73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용인, 21일(금) 취업특강 열려

오는 21일(금) 오후 2시부터 용인매우터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학생취업정보센터 주최로 '하반기 채용 동향과 취업전략'이라는 제목의 취업특강이 열린다.

경희대 경영학박사인정자 IDS 박 1리더로 취업 진행하자 이종구씨가 강사로 나오는 이번 특강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학생취업정보센터 취업보도구인(용인) 최현정은 “취업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 정보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다”며 “최근 정부에서 IMF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경기는 아직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취업난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취업동향을 알고 취업전략을 세우면 다른 사람보다 취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취업대신자는 꼭 이번 특강을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고학력자들이 아닌 저학력학생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매우터						
구분	학 생					
요일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 (17일)	창조경제 (W1,400)	동북동맹 (W1,400)	오르바리스 (W1,500)	무부원장제 (W1,300)	소기업지원 (W1,500)	직접면 (W1,000)
화 (18일)	대우메모리 (W1,400)	오전아카데미 (W1,500)	화사카플레 (W1,400)	심원당 (W1,500)	상주불교기념일 (W1,300)	간사국수 (W1,000)
수 (19일)	생강로 (W1,400)	남북교기 (W1,500)	비프하이라이스 (W1,400)	사물구조지 (W1,500)	순무부 (W1,300)	평안국수 (W1,200)
목 (20일)	복어 (W1,500)	아재복음 (W1,400)	나치나 (W1,500)	목재 (W1,500)	불나 (W1,300)	백만국 (W1,200)
금 (21일)	소기업 (W1,500)	직접면 (W1,500)	휴일인 관계로 제2,3세는 없습니다			
토 (22일)	간사국수 (W1,200)	백만 (W1,000)				

용인매우터						
구분	어 문 관			후 복 관		
요일	중식 1	중식 2	분식	복음밥	덜밥/양식	탕
월 (17일)	카레볶음밥 (W1,500)	김밥 (W1,800)	비빔밥 (W1,000)	아주까리 (W1,500)	장동국 (W2,000)	장국밥 (W1,800)
화 (18일)	육수국 (W1,500)	비빔밥 (W1,000)	햄아재복음 (W1,500)	미트볼 (W2,000)	김밥 (W1,800)	
수 (19일)	아주까리 (W1,500)	간사국수 (W1,000)	오색복음 (W1,500)	비빔밥/양식 (W1,800)	새우볶음 (W1,800)	
목 (20일)	떡볶이 (W1,500)	산채비빔 (W1,800)	비빔국수 (W1,000)	맛있는 (W1,500)	치킨 (W2,000)	치킨 (W1,800)
금 (21일)	떡볶이 (W1,500)	간사국수 (W1,000)	간사국수 (W1,000)	간사국수 (W1,000)	치킨 (W2,000)	치킨 (W1,800)

보도 - 한국언론재단 주최 '한국 언론의 시대적 과제' 토론회

독자·시청자를 사회적 공론장의 참여자로

87년 이후 급증한 언론 신뢰도, 94년 이후 하강곡선... 기자들 윤리의식 부재 심해

"우리나라는 신문사 자체 내에서 오보나 왜곡 기사가 대한 생각이 없어요. 특히 북한관계는 확인한 걸이 없잖아요. 김일성 주석이 한국 언론에 의해 얼마나 여러 번 죽었게요-미국 관리들은 북한 관련권 거 숙속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한국 언론의 신뢰도 위기, 강명구)

한 기자의 자조 섞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에 관련한 언급이다. 이처럼 수용자로부터의 신뢰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현 언론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자 한국언론재단에서는 지난 13일(목) '한국 언론의 시대적 과제'란 다소 거창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언론사 해프닝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독자·시청자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토론회를 제기한 출발점이다.

1부 '한국언론의 신뢰도 위기'의 발제자로 나온 강명구(서울대 언론정보학)교수는, "뿐만 아니라 기자와 이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관용의 문화를 생산하지 못한 한국자본주의는 '진보'와 '보수' '좌'와 '우'라는 단순한 이분법만 있을 뿐, 사회제도와 공동체의 지향, 삶의 조건에 대한 복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고 이 속에서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문제제기 속에서, 신뢰(신뢰)의 중요성, 시청자의 인지가 영향을 선정주의적 보도, 독자, 시청자의 윤리적 언론의 오만함과 언론인

토론회 : 한국언론의 시대적 과제



의 직업윤리 부족 △사주 또는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에 의한 왜곡 보도 등을 신뢰 저하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87년 대 국민적 항쟁 이후 언론 신뢰도가 치솟았다가 각 이념집단의 요구를 담은 폭로성 기사가 주를 이었던 94년 신뢰도가 급락한 점을 실태로 들면서 "독자, 시청자의 욕구를 파악하려는 많은 노력에 언론의 상업적

이해의 관점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을 사회 공론장의 참여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권고했다. 이어 토론회를 나온 성병욱(중앙일보 상임고문)씨는 "한국 저널리즘은 취재보도과정의 기본인 사실성과 정확성이 여전히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기본 전제 속에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95년 무렵, 나름의 윤리실천검열을 만

들어 실천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40% 정도밖에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기자들의 의식개선에 신뢰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손석희(문화방송 차장)씨도 "방송사의 경우 90년대 초 민영방송이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시장경쟁체제에 돌입, 당장의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오락적인 요소만이 중시돼 모든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해지는 등 상업적 경쟁이 두드러지면서 신뢰도는 급락했다"며, "무분별한 외신보도 인용과 대북관련 작대기 시각도 여전히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교수는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시민 사회의 책임, 각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관을 뚜렷이 밝히는 것, 자기 언론인에 대한 교육에 신뢰도 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정리했다. 주제 발표 후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된 토론회는 2주제 '편집권 독립의 제도화 방안' 3주제 '언론의 경영투명성과 시장지향 확보'로 이어졌다. 2주제에서는 주동경(공론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김경근(고려대 언론대학원장), 고영재(한겨레신문 논설위원)씨가, 3주제에서는 이정자(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씨의 사회로 장영국(한림대 언론학부 교수) 회장을 겸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서윤 기자

민주노동당 참여와 학생운동의 진로 토론회 열려

지난 12(목)일 고려대 경영대 학우강당에서는 근래에 보기도 못한 토론회가 펼쳐졌다.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위 이념과 정견이 다른 학생운동세력이 머리를 맞대고 장장 4시간에 걸쳐 현시국 광범위한 학생운동세력과의 민주노동당 참여를 통한 정치지향 변화와 학생운동세력간의 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토론한 것. 이들 학생운동세력은 21세기진보학생연합, 대남계(전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한총련 소속 경기동부지역 학생주진위 등이다.

토론회는 우선 전국연합 전대연 정책위원회장이 '민주노동당과의 필요성과 필요조건'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규열 차장위원장이 '민주노동당 건설투쟁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학생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학생토론에서 '한총련'을 지지하는 '민주노동당'과 '학생운동'이란 주제에서 "노동운동과 더불어 학생운동은 민주노동당에서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과 노동운동이 결합됨에 따라 사회 변화를 가져온다"며, "학생운동은 실질적 세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한총련 지도부부터 담담 일당대일 민주노동당은 상당한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진보학생연합 전략장관 최현환씨는 학생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운동제안인 주제에서 "한국 사회 진보운동의 희망은 '진보대연합'이라는 운동의 역사적 계승"이라며 "진보대연합"의 화합과 발전은 진보정당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되고 민주노동당은 다원화되어 가는 진보운동연합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당과 학생운동, 학생운동세력간의 이데올로기가 다르더라도 서로의 가치와 조화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운동세력은 이데올로기적인 통일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천에서의 통일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건설을 위한 경기동부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이진석씨는 '민주노동당이 가져올 학생운동의 변화, 한총련의 민주노동당 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발표됐다. 기사제공 unews

역지사지

O... 미국이 동시발행 태러공격을 당했다. 엄청난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미국은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는데... 세계화경로로 군림해오던 미국에게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것이다. 하지만 사태해결의 본질은 자신의 허를 만져 살피는 데 있지 않을까. 자기가 때린 건 생각 안하고 맞은 것만 기억하는 미국의 행태, 이를 가리켜 '남이 하는 건 태러, 자기가 하면 세계 평화'라고 하더라.

(나)

O... 90년 투쟁을 통해 몰아냈던 비리 재단. 그들이 복귀할 움직임을 보여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그들은 '학교의 주인은 우리'라는 주언인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소규모를 바탕으로 복귀를 단언시킨다. 이들은 그림 전근대적 사고를 하는 몇몇 부모의 다음과 같은 의견에도 동의해야 할 것인데...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견디다 못한 아이가 가출했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하며 남이 이런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은 가정생활침해'다?

(순)



O... 요즘 이메일을 확인하면 온갖 광고성 메일이 그야말로 '장난' 아니게 날아온다. 내막을 알고보니 인터넷 업체들이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게 팔아 넘겼다고.

이들은 오, 유백민씨의 신상정보를 고객 등의 이름이 넘겨주고 50만원~2억 3천만원까지 받아 쥔것이다. 이를 일인당으로 환산하면 최소 50여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에 분노한 우리 크로노클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사고 팔 수 있는 정보와 시대, 근대 인터넷이 너무 심한게 아니냐'

(광)

정보 인플레

보도 - 스물다섯번째 모의 유엔총회 '새로운 정보질서 확립을 위한 문명간의 대화'

지식정보의 원활한 교류, 문명화합의 초석



'새로운 정보질서 확립을 통한 문명간의 대화'란 주제의 스물다섯번째 모의유엔총회가 지난 13일(금) 서울배움터 국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학생들이 각국 대표위원으로 분해 해담 나열 언어로 각국 입장을 발표,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가 올해에는 대한민국, 러시아, 독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선정됐다.

은 주제 '새로운 정보질서 확립을 통한 문명간의 대화'는 유엔이 정한 '문명간 대화의 해'를 맞아 지식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크고 작은 문명의 충돌을 논의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정됐다. 이 주제 아래 회의는 정보, 군사 안보, 인권의 세 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주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선진국, 개도국간에 정보화수준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상대적으로 정보 인프라 구축과 기술이전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지역적 협력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기술이전이 기술종속을 낳으므로 국제적 차원의 기틀을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독일 대표들은 "그러한 제도의 장치를 정보기술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한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표결을 통해 대표위원들은 균형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적 협력체제 구축 △기술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기준 설정 등에 동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2주제 논의의 시간에는 국제안보 영역에서의 정보와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대표의 "지식정보와 시대에서 우리들은 정보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인터넷 통과의 각국 공조 수사체계를 공고히 하자"는 의견 발표 속에서, 일본대표 또한 "일본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연구, 교육을 실시하자"고 말했다. 이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인보의 신상의 정보 안보 연구와 설치 △각국간 수사체계 협력 등을 담았다. 마지막 주제는 정보사회화의 인권분야였다. 여기서에서는 △지역 재산권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호체계를 세울 것 △인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 소수민족의 문화에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할 것 △인간 신체의 유전자 정보를 높이 평가하고 위생과 의의 내용을 결의안에서 채택했다.

예상 시간을 넘어서 장장 4시간 만에 결쳐 진행된 이번 유엔총회는 대체적으로 매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또, 각 주제 논의 시간 중간에는 각국의 기조연설문 발표 시간을 주어 회의에 변화를 주었다. 본회의 시작 전에는 얼마 전 벌어진 미국의 테러 사건을 감안, 행사 중간에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상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준비위원회 백찬규(서양·서아리아 00)군은 "이제 최대의 행사라는 인식이 있어서 홍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이번 행사가 그런 한계점들을 한단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학술부

학술 단신

법대 사회과학회, '카멜레온은 언론과 언론개혁' 심포지엄 열려

법대 사회과학회는 오늘 18(화) 늦은 5시 반 대학원 소강당에서 '카멜레온은 언론과 언론개혁' 심포지엄을 연다. 법대 가을 학술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언론의 문제점과 현 언론개혁의 과제에 대해 논한다.

학술부

청랑제

일시 : 9월 21일 금요일 늦은 5시부터
초대가수 : 블랙홀
주최 : 모현학사 사생회 & 생협학생위원회

정간법을 알면 언론개혁이 보인다

6개월 일출을 끝낸 언론사 세무고발사건이 언론사 사주 3명 중 13명이 기소되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이례적인 정기간행물법(이하 정간법)을 언론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제정하라는 뜻을 드러내 하고자 말한다. 본지는 언론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이라 불리는 정간법을 무엇이며 그 개정에 관한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편집장 주

언론사 세무조사 정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다. 이를 야당언론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과 언론사들의 틈바구니에서 국민들은 '언론탄압'과 '언론개혁'이 충돌 한 장 치러야 하는 새로운 사안임을 깨우쳐를 받는다. 하지만 정간법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비리사주의 구속에 대한 정간법 권력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대한 것. 정간법 개정안은 실용적인 언론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과 논의의 배경
정간법 논의의 핵심은 '편집권'이다. 그리고 편집권 문제에 대해 현재의 정간법은 실효성 없는 선언적 규정만을 가진 '허수아비'라는 지적이다.

편집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편집권의 행사방법을 규정하고 편집권

의 독립을 지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간법 개정의 영향을 직접 받을 언론계에서는 오히려 그 논의가 합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몇 언론재벌들에게 이 논의는 '기득권 침해'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사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언론계의 고용불안이 증대되면서 내부에서 '감히' 편집권의 독립 등을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과당정권은 삼당정부를 낳고 이는 곧 권위주의의 언론정책에 편집권이 노출된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심화되어 가는 언론재벌의 통제에 비해 미약한 언론사 내부의 자정적 요구를 고려할 때,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간법의 개정 방향과 내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사회시민단체가 국회에 제출한 정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간법 개정안은 신문사 소유 제한, 편집권 독립,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신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여, 독자 주권의 확립 등 공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간법 개정안은 15대 국회에 입법예원한 개정안을 방심하에 준해서 보완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수용자의 권리보호 조항을 새로 담

았다.
-신문사 소유제한: 본사 및 지부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를 금지시키고, 1인사주자 확보의 소유지분을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신문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행 및 판매 부서, 수입구, 구독료 및 광고료 등의 자료에 대한 신고 의무화.
-일간신문사 및 통신사의 편집 및 경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조항 신설.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편집규약의 제정 의무화.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공성을 강조하는 조항 신설.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방송법에 규정한 시청자위원회의 같은 독자위원회의 구성을 신설.
-신문 구독자의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독자를 보호하는 조항 추가.

논란이 되는 시안
개정안에서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특정언론의 소유자 30% 제한'이다. 이 조항의 취지는 사주의 부당한 간섭을 제한하고 공공성을 살린다는 것이다.

이당에 위한 사회일반에서는 이를 '자유언론을 침해하는 사회적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편집의 자유와 독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특정신문사의 여론과도 관련이 되고 있

다. 신문의 공익적 성격상 일반기업과 달리 더 엄격하게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한 업체가 시장의 50%를 초과할 때 75% 이상을 독과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거나 독자적인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상황
지난 달 12일 세무조사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중진의원 및 민주화운동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최태환의 모임' (최태환)과 여야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정지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 (정개혁)은 언론사 편집권 독립 방안 등을 담은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달 정기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정간법 개정안은 언론개혁 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해 11월 입법예원한 국회 문공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앞으로의 전망
민주당과 지진원의 공조체제가 깨지면서 정간법 개정안 통과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진원이 지난 9월 16일 국정감사 청문회에서는 자민당이 이미 한나라당 측으로 손을 내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여야 모두 언론개혁 제도를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여 소신있는 자유투표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유지훈 기자 kickbutt@orgnet

민노보가 - 조선일보 반대 연세인 모임(조반연) 대표 오승훈씨

안티조선의 길은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모임장소인 연세 앞의 어느 카페에서 만난 '조선일보 반대 연세인 모임' (이하 조반연) 대표인 오승훈씨. 최근 '조선일보'라는 주간지를 만들어 꾸준히 사람들의 반응을 얻고 있는 조반연은 조반연에 개설한 커뮤니티에도 다른 대학의 안티조선 커뮤니티도 활동이 많은 240명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다. 오씨는 과연 어떻게 안티조선운동을 시작했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게 된 대 성공했을까.

"절정적 계기는 조반연에 기교를 많이 하는 교수들과의 인연이었어요. 강의시간에 조선일보가 민족주의다. 항일지사이라는 말을 늘 어는다는 등다 한 것을 수 없는 사람들 몇몇이 언젠가를 '못' 했을 때가 5월 말에 처음 만든 게 조반연이죠. 조선일보에 대해 그 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많았던 탓일까, 오씨는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조반연 결성 후 그들이 많이 이해했던 운동은 안티조선에 빠졌다. 안티조선 신문인 '조선비보'를 만드는 일. 조반연이 만들고 있는 '조선비보'는 조선일보의 친

일행적, 독재자적 등을 고발하는 동시에 특히 '연세 친조선 인물 열전'이란 코너를 통해 김동진, 유석준, 송복 등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교수들을 매섭게 비판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방학중에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과 함께 '제1차 신문계'를 추구하고 조선일보 반대운동 위한 전국 대학생 선언에 참여했어요. 이번엔 필자적 제 1회 안티조선 문화제를 서울에 총화, 우리모두, 한문원, 민선원같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뜻이 맞는 단체와 언제든지 연대할 생각입니다"라며 연대활동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오승훈씨는 방송에 발인 안티조선에 관련된 여러 행사 때문에 이번 방학을 '헛날'했다고 한다.

대외적 활동이 아닌 연세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묻자 오씨는 "대동동과 통일 대학원 대 조선일보의 폭력파고 거러선정전을 진행했습니다. 2학기에는 학교 부처 하나하나를 찾아가서 실력이나 인력으로 조선일보를 활동시킬 생각이고요, 신문거리를

의 여러 상점·음식점들을 찾아가 역시 조선일보를 권유했습니"라며 조선일보 명예회장으로 있는 방우원 현 연세대학교 이사장직에 운동도 발인 생각이라고 말한다. 온라인 운동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오프라인의 활동부족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주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회합강령을 정하는 등 내실화를 기할 것"이란다.

인터넷 내 자신 있는 어조로 말하는 오승훈씨. 그가 생각하는 안티조선운동의 의미와 목표가 궁금했다. "결국 이것은 국수·수구세력과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이데올로기 싸움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조선일보를 안 보는 상황을 기대하길 원해요. 하지만 조선일보 같은 국수신문이 국수에 걸맞은 아주 적은 영향력만 행사하게 되는 사회, 그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라며 오씨는 안티조선운동은 어떻게 보면 '제 2의 민주화운동'일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창호 기자 hufshan@hanmail.net

기교글 - 미국 비행기 테러사건에 대한 현지 대학생들의 반응

대학은 무조건적 이슬람증오에 반대

대학의 긴장한 시국을 정부가 못타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바가 없는 것 같다. 테러 발생 일주일 9월 18일 (월) 현재, 미국은 대 이라크가사단 전쟁의 모든 준비를 끝냈다. 대통령의 공적명령을 남겨둔 상태다. 즉 언론은 보복전쟁을 청상하는 미국인인 전쟁의 80%가 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쟁 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테러참사의 현상인 뉴욕시의 맨해튼에 위치한 컬럼비아대학과 뉴욕대, 테러 이후 많은 경의가 취소되는 등 어수선한 이들 학교 교정을 찾았다.

테러참사지 처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단조롭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과 그 대안을 보는 시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 학생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가 미국의 번영에 대한 이바지인들의 잘못과 시기에 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정치학과 3학년 벤자민 피시먼의 의견을 들어보자. 피시먼은 "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우리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 되고있고 미국의 공격력을 과소평가한 결과로 본다. 학생이 비교적 보수적인 컬럼비아대학이지만 진정한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근본적인 치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 대학 일간신문인 컬럼비아 스펙터터(Columbia Spectator)는 9월 14일자 논설위원회의 사설에서 "비판적인 발언이 곧바로 이라크 학생들에 대한 백인학생들의 공격을 비난하며 이성적인 대응을 호소했다. 사설은 '참사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분노를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본질을 망각하는 것 외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컬럼비아대의 학생과 뉴욕시의 기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있으며 삼촌종교이탈로 공동체에게 진정한 힘을 부여할을 원기시켰다. 사설은 이어 '이라크인과 이라크에 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단결은 우리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라크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목표"라고 쓰고 있다.

컬럼비아대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학풍을 가지고 있는 뉴욕대의 학생들은 한층 강한 어조로 정경변태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 대학 일간 신문인 워싱턴 스퀘어 뉴스(Washington Square News)의 노는 앤드레이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에게 묻자. (Take a look at into the mirror, America, and ask why)"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진단했다.

"이번 테러참사를 정경변태로 볼고 그들을 제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언론이 직접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전쟁에 대립되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앤드레이의 기자는 다른 교내 학생정적 등 이라크들의 여론을 모아 정리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국과 제3세계 학생운동정적이라고 있을 것인데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 신선한 충격이다.

앤드레이의 기자는 "계속되는 이라크에 대한 분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등 미국의 제국주의는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본다. "미국인들이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했던 일들을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볼 줄 안다면 행동이 발단이나 공격 받은 사실이 놀랄만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테러 현상의 한 복판에 위치한 대학의 시국을 감안할 때 꽤나 위험한 말 이 아닐수 없다.

컬럼비아대 피시먼군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전쟁은 불리고 테러에 대한 주권과 민주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국악무도한 비검자학을 정경으로 응징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나아가 그는 미국정부에 국가방위체제의 수정을 주문했다. 미시알아게체(NMD)를 철회하고 그 예산으로 테러전 전망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인력과 기술력을 대폭 강화하라는 요구다. 절점과 같은 통상적 개념의 정경에 대한 해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NMD 같은 공상과외적 방어 개념이 담긴 논설에서 테러로 인해 수천명의 죽어가는 미망은 무슨 줄고가라는 주장이다.

뉴욕대 앤드레이의 기자는 이번 사태가 물리적 정경변태와 이라크 사민족적 정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백악관과 언론이 이번 정경을 통해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국내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표시까지도 억압하는 하는 조치로 활용할 것 같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반세계화주의운동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반미제국주의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호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백자수표를 써 주는 우리 국민이 벌써부터는 안된다." 그가 내세우는 해결책은 피시먼군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교묘한 정경이 서방국가와 타인 인종화와의 서의 표징들 최근 우리 정부가 보여준 행동은 국제사회에 선의를 가진 책임있는 일임이 되기를 포기하는 국제적 표현이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의 의 희생으로 미국의 생명과 부를 지켜려 한다면 이번 테러의 비극은 연례고 재발할 것이다." (As long as the US continues to act as an autonomous entity to ensure the quality of life of Americans at the expense of those in other countries, one cannot be surprised when terrorist attacks such as the ones of Sept. 11 occur.)

최현일

(회계사/ 회계경영법 법인 KPMG 뉴욕)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안내

저희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고, 생활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 10월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론워크숍

- ◆ 진로 의사결정 워크숍
내용: 자신의 가치관, 성격, 흥미, 여가활동 등을 토대로, 자기에게 적합한 진로 결정. 지도: 강이영(상담부장)
- 일시: 9월 28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3:30-5:00 총 4회 모임

MBTI Workshop

- 내용: 자신의 성격유형을 파악함으로써 교육현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
- 지도: 오석영(전문상담원) / 일시: 9월 25일(화) 3:30
- ◆ 건강관 의뢰워크숍을 위한 집단 Workshop (여론 보는 선택과 사항)
- 내용: 나의 인생, 생애의 길, 제2의 인생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
- 지도: 오석영(전문상담원) / 일시: 10월 11일(목) 2:30-4:00

응답워크숍

- ◆ 자기표현훈련
내용: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일시: 9월 28일(목)부터, 매주 금 3:30-4:00 총 4회
- ◆ 취업면접 연습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1차: 9월 25일(화) 2:30부터 6:00분
- 2차: 10월 4일(목) 2:30부터 6:00분

응답워크숍

- ◆ 자기표현훈련
내용: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일시: 9월 28일(목)부터, 매주 금 3:30-4:00 총 4회
- ◆ 취업면접 연습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1차: 9월 25일(화) 2:30부터 6:00분
- 2차: 10월 4일(목) 2:30부터 6:00분

응답워크숍

- ◆ 자기표현훈련
내용: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일시: 9월 28일(목)부터, 매주 금 3:30-4:00 총 4회
- ◆ 취업면접 연습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1차: 9월 25일(화) 2:30부터 6:00분
- 2차: 10월 4일(목) 2:30부터 6:00분

응답워크숍

- ◆ 자기표현훈련
내용: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일시: 9월 28일(목)부터, 매주 금 3:30-4:00 총 4회
- ◆ 취업면접 연습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1차: 9월 25일(화) 2:30부터 6:00분
- 2차: 10월 4일(목) 2:30부터 6:00분

응답워크숍

- ◆ 자기표현훈련
내용: 나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일시: 9월 28일(목)부터, 매주 금 3:30-4:00 총 4회
- ◆ 취업면접 연습
지도: 신진희(상담부장)
- 1차: 9월 25일(화) 2:30부터 6:00분
- 2차: 10월 4일(목) 2:30부터 6:00분

2002학년도 교육실습 신청원 접수

1. 제출대상: 2001년 2학기 현재 3학년(2002-1학기 7.8학기 등록 대상) 학생으로 교과과정 이수예정자 및 사범대학 학생
2. 제출기간: 2001. 9. 24(월) - 10. 5(금)까지
3. 제출장소: 서울캠퍼스 →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 교무처
4. 제출서류: 교육실습 신청원 1부
"교육실습신청원"은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5. 교육실습기간: 2002. 4. 1(월) - 4. 27(토) 4주간
☞ 교육실습은 매년 4학년 1학기 1회 실시함

※ **실습학교 선정**: 교육실습 신청 학생은 "교육실습 협조 요청" 공문(2001. 9. 24부터 배부)을 사범대 교학과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처에서 수령 후 본인의 학교로 거주지 인근학교의 승낙을 받아, 2001. 12월 말까지 "교육실습 승낙서"를 사범대학 교학과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함

타교 학생보다 먼저 9월부터 받는 것이 유리함

2001. 9.

사범대학

교육실습 승낙서 제출

1. 제출대상: 가. 사범대학 3학년 학생으로 2002년 4월 교육실습 대상자 나. 교과과정 이수예정 3학년 학생으로 2002년 4월 교육실습 대상자
2. 제출서류: 교육실습 승낙서 1부
3. 제출기간: 2001. 12. 28(금)까지
4. 제출장소: 사범대학 교학과(FAX 965-7047)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 교무처(FAX 031-333-1687)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향신리 산 89 교무처
5. 제출방법: 우편 또는 전송(팩스)
6. 실습기간: 2002. 4. 1(월) - 4. 27(토) 4주간
☞ 교육실습은 매년 4학년 1학기 1회 실시함.

※ **실습학교 선정**: 교육실습 신청 학생은 "교육실습 협조 요청" 공문(2001. 9. 24부터 배부)을 사범대 교학과 또는 용인캠퍼스 교무처에서 수령 후 본인의 학교로 거주지 인근학교에서 "교육실습 승낙서"에 승낙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타교 학생보다 먼저 9월부터 받는 것이 유리함

2001. 9.

사범대학

외대문화



현정취재 - 배운터를 달리는 사람들

주민들의 휴식처 '외대 공원'

풀밭에 모여 술 마시는 학생들. 벤치에 앉아 사람들 속삭이는 연인들의 모습은 늦은 오후 서울배움터의 일상적 풍경이다. 하지만 연배부터인가 서울배움터의 밤은 또 다른 풍경. 운동하는 주민들로 채워지고 있다. 붉은 광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 대운동장을 뛰거나 걷는 사람, 그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도는 어린이들, 그리고 산책 나온 가족들... 가을 바람이 선선한 요즘에는 하루 5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학교로 모여들고 있다. 학생들이 빠져나간 자취 사막처럼 보이는 저녁 배움터를 주민들이 활기차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저녁 9시경 학교로 산책 나온 정씨 할머니(60)는 "나이가 들면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탓에서 학교로 온다. 우리 동네는 복잡하니까 학교에 오면 복잡한 차들에서 벗어나 편히 운동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역시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운동을 하고 산책하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우원수, 서양·서반어 97)라고 말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처럼 주변 공원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 학교는 주민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려면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다. 김성준(36)씨는 "가끔 운동을 하다 보면 평행봉 같은 간단한 몸을 쉴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우리학교 운동장에는 철봉 이외에 별다른 운동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적지 않은 수의 주민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현상에 적어도 간단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부대시설은 고려해 볼지하다. 운동기구 설치 등의 그 작은 배려는 주민들에게는 이곳이 쉼터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또한 함경선(36)씨는 "외대는 조용한 걸을 수 있는 곳이라 자주 찾는데 편히 쉴 수 있는 미네르바가 없어진 것은 좀 섭섭하다"고 말한다. 이미 없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더 필요하다. 아무리 협소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학생과 주민들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다가온다.

지역주민과 하나되는 외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학은 지역 사회의 일부이고 주민들도 그 지역 사회의 일원이다. 그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대학이 좀더 그들을 배려하며 다가간다면 주민들은 좀더 편히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김종현 기자 bpress@hanmail.net

심층취재 -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 무엇을 하고 지내나?

우리도 외대생이라구요!

첫번째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한 프로그램 부족해 애매한 합격자

우리 학교 수시모집 합격자들은 무엇을 하며 지낼까? 지난 6월 15일 대학 당국은 28명의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학교장추천, 국제전문가, 수능우수자, 자기추천자 등 3종으로 선발된 이들은 지난 8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3일간 용인배움터에서 캠프를 가졌다. 그 중 37명은 우리 학교 외국어원 수험생에 미련한 영어강화를 듣고 있는데, 몇 사람을 만나 보았다.

미리 약속을 잡아 놓고 갔던 듯이 수업이 끝난지라 학생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내심 걱정되었다. 하지만 교실문을 열자마자 곧 정원은 찼고 그후로 이들의 적극적인 인태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요즘에 뭐예요?"라는 질문에 이들은 볼품 터지듯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대부분 학생들은 아침 7시에 학교에 가서 2시간 남짓 머무른다. 학교에 머물 때에도 선생님의 잡무를 도와 줄 뿐이다.

"처음엔 좋았지만 며칠 지나니가 무려서서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었어요"-김원태(법·법학 02)

"학교 가면 애들한테 괜히 미안하고 또 할 일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잠만 자요"-김성원(상경계열 02)

이렇듯, 대다수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은 '무聊'라고 한다. 게다가 그들은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서의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장준호(서양·노어 02)는 수업시간에 머물러 선생님으로부터 "공갈로 처리할 테니 학교에 나오지 마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의 시기와 버려짐을 동시에 느끼고 있지만 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급우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한 학생은 이들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생이고 대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이요"-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입학을 기다리는 이들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출석을 해야한다. 이런 답답함에 김원태군

은 "1학기 조기졸업제가 시행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어떤 학생의 "우리도 일반인 외대 학생이나 학생들을 발급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그들의 애매한 처지를 반증해 준다.

그들은 "수시모집 합격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육청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교육당국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대부분 학생들의 뒷받치는 요구로 지난 10일(월)부터 외국어원수험생에서 시작된 영어회화 수업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전부가 되었다.

"그래도 지금은 영어회화 수업을 듣고 있어서 무聊'무聊'하며 학교에서 준비한 영어강화에 만족감을 보였다. 외국어원수험생이 주일 조지연씨는 '입학과에서 급히 요청이 들어와 조금씩 강화를 만든 면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1학기 수시모집제가 정착되면 면밀한 계획을 세워 학생들에게 좀 더 알찬 강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합격자들은 외대 일반생이라는 자부심으로 희망에 들뜬 모습이다.

학교의 기대로 가득찬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학교의 이모저모.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자기가 합격한 학과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지, 선배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만나고 싶다는 등의 궁금증이 가득하다. 이에 총학생회 주치의 예비학교나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사업 소개 등의 프로그램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게 더 바라는 것이 있으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학교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는 선배들과 만나고 싶다는 지리가 많았으면 하고 그로 인해 학교를 좀 더 알고 싶다고" 답했다. 02학번의 소박한 희망은 우리 학생들에 예민 세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 관련 동호회: 외대0200000 - <http://cafe.daum.net/hus02>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생활시평

'복돌이' 들어와, 다시 날자!

"강의시간에 발표 조를 나섰는데 나 빼고 모두 00. 01학번들이더라구. 학번을 밝히니까 애들이 아주 의아스럽다는 듯 나를 쳐다보는데 말이지..." 허탈한 웃음을 흘리며 강의시간에 생긴 에피소드를 말해주는 '복학생' 선배의 눈에는 아쉬운 빛이 서려다.

'예비생' '복돌이'라고 칭해지는 이들 복학생은 수차례로 전 외대생의 30%를 넘는다. 하지만 2~3년만에 다시 찾은 학교는 이들에게 낯설고 삭막한 공간일 뿐이다. 때문에 적응하는데도 보통 한 학기 이상을 소비한다.

"후배들과 말투, 옷차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너무 상이하다는 걸 느껴.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복학생들끼리만 어울리게 되는 것 같다"는 선배의 밀착된 적응을 한다해도 이들은 거기까지 몸치라 된다. 또한 애초에 친분이 있던 선, 후배들도 학교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돌아온 나 학생의 활동은 훨씬 사뭇 봉쇄되는 느낌을 갖는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자질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다.

재학생들이 복학생들을 보는 시각 또한 '대하기 어렵다' '복학생들'에서 오히려 먼저 우리와 섞이는 것을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용인배움터 서반어과에서 준비한 '예비생-현역 측구대회'는 서로간의 거리감을 허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참가했던 한 학생은 측구공을 가운데 놓고 흠뻑 땀을 흘리는 사이에 그간 쌓이었던 어색함과 불편함을 날려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서로간의 노력이 필요한 때 아닐까? 복학생들은 적응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좀더 적극적인 태도로 부딪히는 것, 그리고 재학생들 또한 편한 거리감 이전에 이들을 먼저 선배로서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를 돕기 위한 과 차원의 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 재학생들의 반 넘짓을 차지하는 '복학생'으로서의 삶, 좀더 온화하게 보내 줄 수 있는 방도를 서로 머리 맞대고 생각해 보자.

마지막으로 복학생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학 우리를 아저씨 취급하지 말아 줘!"

문화부

반

뛰뛰하다(22)

별이나 소문의 내용이 확실한 근거가 없고 미덥지 못하다 라는 의미. 여간이 작은 말로는 야간이 작은 말로는 떠돌이하다

그런 가을 빠꾸기 같은 뽀뽀한(근거없는) 소문은 믿을 수 없다.

영화



안정호 /감독/9,000원

미늘의 끝

미늘은 낯서 미늘의 거스르미다. 한 번 걸린 물고기가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물고기의 입 안에 나 아이미를 채우고 버린다. 아이기면서 인간이 지지는 잘못과 죄는 지지하지를 알고 한 번 살 속에 박힌 미늘처럼 인간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다. '미늘의 끝'의 전작 1991년 발간된 '미늘의 끝'이다. 이를 이번 중편소설집에 실었다. '미늘의 끝'은 '미늘'에서 한 장면을 통해 삶의 의미를 얻고 사물로 돌아갔던 서 사장이 다시 한번 한 장면을 낚시여행에 오르는 에피소드 시작한다.

'미늘의 끝'은 그야말로 미늘, 인생의 끝을 말한다. '미늘의 끝' 외에도 두 사람의 표류기 '꽃에 빠진 대화', 이혼 풍속을 그린 '포스트 디보', 미국인의 아내, '해월의 뒷모습' 등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고병권 /감독/13,000원

내제, 천개의 눈 천개의 길

이 책은 젊은 철학자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내제 해석이다. 숫자 '천'은 다량성과 차이를 가리킨다. 내제는 모든 사람이 지닌 '천 개의 주파'를 '천 개의 눈'으로 바라보고 '천 개의 길'을 거쳐 '천 개의 숨겨진 삶'에 이른다.

이 책의 본문은 모두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전반부는 내제와 철학의 관계, 도덕과 윤리, 내제, 내제의 해석학과 내제에 대한 해석학, 내제의 근대 정치 비판 등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권력의지와 영원회귀, 초인 통 내제 철학의 주요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은 내제의 저서들을 따라가면서 내제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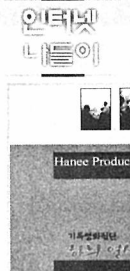


김윤식 등 /감독/20,000원

상상력의 거미줄

소설가로 문화비평가로 대학교수로 문화부장관으로 세한년준비위원장으로 다대한 활동을 펼쳤던 이아령, 그의 화집 기념 논문집 '상상력의 거미줄'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크게 언어, 통찰력, 상상력, 대화라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이아령 문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비평에서부터, 이아령의 소설, 글의 구조는 문학작품 그리고 그의 고전문학 연구론, 문화론, 문예론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이아령 문화의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다. 화집 논문집으로는 이아령의 그의 저서 '혹소자의 일문일답'을 비판한 일문일답의 글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하녀영상 <http://www.haneepelkr>

하녀영상 <http://www.haneepelkr>

영화의 시작은 1885년 루이에르 형제의 '뤼미에르 공전의 열광', '열차의 시작' 등 다뤘던 영화다. 이렇듯 가장 오래된 영화 장르인 다큐멘터리, 즉 기록영화의 정체가 담겨 있는 곳이 '하녀영상' 사이트이다.

1994년 4월 19일 시작된 하녀영상의 이름은 사진 전통의 장편 서사시 '금강'의 주인공 '신하녀'의 이름에서 착안해 지었다고 한다. 이 사이트에는 기록영화의 정보 뿐 아니라 영화계와 독립영화계 소식, 다큐영화, 영화평론 등 영화 각 분야의 정보도 함께 담겨 있다.

